

고창군 체류형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 성공정착 지원

✎ 봉채영 기자 Ⓞ 승인 2023.05.04 09:11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이 지난 3일 귀농귀촌 성공정착을 위해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고창군 제공

[고창(전북)=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가 귀농귀촌 성공정착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명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에는 농업학교 교육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신연수 고창군이장단연합회 회장, 최종엽 농촌지도자 고창군연합회장, 오철환 고창군체육회 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각 명사들은 고창군 자량과 지역민과의 소통하는 방법 등으로 안정적으로 귀농귀촌 정착하기 위한 애정어린 조언을 전했다.

이번 강연은 귀농귀촌인의 지역민과의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성공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명사들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고창군청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행사로 서로가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